



송승헌

“저승사자·사기꾼 캐릭터 변신하니 연기가 재미있네요”

‘블랙’ ‘플레이어’ 하며 장르극 재미 깨달아 저런 연기도 가능했냐는 반응이 제일 기뻐

“늘 진지하고 가슴 아픈 사랑만 하다가 이렇게 장르극을 연이어 해보니 너무 재밌어요. 연기에 대한 재미를 최근 새로 알아가요.”

‘멜로 왕자’에서 최근 OCN ‘블랙’, ‘플레이어’를 연달아 찍으며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배우 송승헌(42)의 눈이 반짝였다.

‘블랙’의 저승사자도 색달랐지만, ‘플레이어’의 사기꾼 강하리는 그야말로 송승헌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영역이었다. 능글맞으면서도 샤프하고, 편안해 보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캐릭터였다. 작품 역시 국내 드라마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케이퍼 장르로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으며 시청률 5.8%로 중영했다.

14일 서울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만난 송승헌은 “사건과 인물 간 갈등을 위주로 가는 장르극을 찍다 보니 요새는 다른 것을 보면 조금 시시한 느낌도 든다”며 “특히 ‘블랙’으로 케이블 채널을 처음 시도

했는데 확실히 표현 수위도 다르고 각종 제한이 덜해 찍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승헌은 무엇보다 자신의 연기 변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기쁘다고 했다. “송승헌이 저런 면이 있어? 다시 봤네” 이런 얘기 들을 때 정말 힘이 돼요. 그러면서도 ‘대중이 내게 선입견이 있었구나’ 돌아보게 되죠. 그동안 너무 정형화되고 반듯한 모습만 보여줬나 싶고요. 그래서 이번 ‘플레이어’에서는 정말 편안한 기분으로 연기했어요. 오히려 ‘너무 날림으로 연기하는 것 아닌가’ 한 번씩 고민할 정도로요. (웃음)”

그는 그러면서 “PD님이 ‘여름향기’ 때 조연출이라 형 동생 하는 사이고, (이)시언이부터 (태)원석이, (정)수정이까지 멤버들의 합도 너무 좋아서 재밌게 찍었다. 정말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나오는 제 모습이 상당히 반평했다”고 덧붙혔다.

송승헌은 ‘플레이어’의 매력에 대해서는 “주제는 하리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는 내용이지만 그걸 무겁게 표현하기보다 쿨하고 경쾌하게 그려서 좋았다”고 설명했다.

“약간의 B급 코미디 같은 부분도 많은 공감을 얻은 것 같아요. 또 최근 우리 사회에 대통령 탄핵 등 변화가 많았는데 사회상을 꼬집는 내용도 많았기 때문에 통쾌한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전문에우 받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에게 하리가 ‘너 진짜 많이도 해먹었다. 배 터지겠다’ 같은 대사를 할 때는 저도 신났죠.”

‘플레이어’의 마지막은 시즌2를 암시하는 듯한 장면이었다.

송승헌 역시 “이런 캐릭터들을 그냥 끝내버리면 아깝지 않냐는 이야기를 서로 많이 했던 건 사실”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시즌2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얼굴만 보면 20년 전 그대로인 것 같지만 어느덧 마흔이 넘은 그는 최근에는 연기에 대한 재미, 갈등이 동시에 생겼다고 한다.

“1995년 어느 날 청바지 광고를 찍고 나서 다음 해 갑자기 시트콤(‘남자 셋 여

자 셋’)을 찍게 됐죠. 욕도 많이 먹었고, 재미도 별로 없었어요. 연기는 그냥 내 직업이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30대 초반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데 대해 감사하며 살라’는 팬레터를 받고 싶고, 멋지게 늙고 싶다. 요새는 어떤 게 행복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장르극에 폭 빠져들었다기에 한동안 이 장르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니, 언젠가 더 농익은 멜로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행과 흐름은 돌잖아요. 얼마 전에 ‘가을동화’를 재방송해서 봤는데 정말 눈물을 펄펄 쏟더라고요. 언젠가 그런 감성이 또 올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멜로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연합뉴스

“개그도 영화도 나의 전성시대” 박성광, 한중영화제 신인감독상

개그맨 박성광(사진)이 ‘영화감독’으로 한중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다. 박성광 소속사 SM C&C는 박성광이 지난 1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올해 제2회 한중국제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박성광은 첫 연출작인 ‘육’을 독일 ‘지하철 영화제’에 출품해 상영했고, 지난해에는 단편 영화 ‘슬프지 않아 슬픈’으로 ‘제1회 미추홀 필름 페스티벌’에서 연출상을 받기도 했다.

소속사는 “방송과 스크린을 오가며 방송



인이지 영화감독으로서 활발한 활약을 전하는 박성광이 앞으로 또 어떤 분야에서 활약을 전하게 될지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박성광은 현재 MBC TV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그의 매니저 임승 씨와 남다른 신뢰 관계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영, 12년째 뇌성마비복지회에 재능기부

방송인 현영이 매년 기부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사진)

현영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현영이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열린 뇌성마비장애인들의 문화예술축제인 제36회 오뚜기 축제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영은 뇌성마비복지회와 2007년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오뚜기 캠프, 축제, 바자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재능기부를 했다.

현영은 또 지난 10일과 11일 AK플라자 분당점에서 ‘현영의 엔젤마켓’을 열어 50여 개 업체 브랜드와 함께 바자회를 열었

고, 기부금과 수익금은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 바자회 역시 현영이 4년째 이어온다.

뇌성마비복지회 관계자는 “오뚜기 캠프, 축제, 축구대회 등 분기별로 최소 4회 이상 행사를 진행하는데, 현영 씨는 한 번도 빠짐없이 행사에 참여해 웃음과 열정을 선물하고 간다. 현장의 모든 사람이 현영 씨를 반기고 현영 씨도 익숙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많다. 가족과도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영은 지난해 12월 둘째 아들을 출산했으며,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Slot, and Description.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Slot,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5일(음 10월 8일 辛亥)

Table with 3 columns: Hour (子, 丑, 寅, 卯, 辰, 巳), Day (子, 丑, 寅, 卯, 辰, 巳), and Fortune Prediction.